

야곱에게서 나온 별이신 그리스도

성경: 민 24:17, 창 1:14-19, 단 12:3, 마 2:1-12, 계 1:16, 20, 2:1, 28, 3:1, 22:16,
벧후 1:19, 창 22:17, 유 12-13

I. 민수기 24장 17절은 “별 하나가 야곱에게서 나오고”라고 말한다. 이 별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A.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표의 성취는 마태복음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동방에서 온 박사들, 곧 학자들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에서 발견된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께서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분의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1. 박사들은 “별 ‘하나’가 떠오르는 것을 보고”라거나 “‘그’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라고 말하지 않고, “‘그분의’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라고 말하였다.
2. 이것은 분명히 민수기 24장 17절의 성취이다. 이 절에서 말한 별이 이 학자들에게 보였다. 이 별은 이스라엘 백성 중 그 누구에게도 나타나지 않았다.
3.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이 있었고 그들은 그분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실지 알았지만(마 2:4-6), 그리스도의 별을 본 사람은 박사들이었다.
4.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실지에 관한 문자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미 5:2), 동방에서 온 이 학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 있는 이상을 받았다. 결국 그 별이 그리스도께서 계신 장소로 그들을 인도했다(마 2:9-10).
5. 그리스도는 참된 해이지만(말 4:2), 엄격히 말해서 그분은 밤의 시대 동안에는 해로서 나타나지 않으신다. 그보다 그분은 별로서 빛을 비추신다. 별은 밤에 빛나지만, 이것은 낮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가리킨다.
6.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오셨을 때에는 별로서 공개적으로 나타나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에 그리스도는 그분의 오심을 위해 깨어 있는 그분의 이기는 이들에게 셋 별이실 것이다(계 2:28, 22:16). 다른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이후에 해로서 나타나실 것이다.

B.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살아 있는 문제임을 게시한다.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의 교리적인 지식에 속한 문제가 아니다.

1. 별은 참된 종교로부터, 거룩한 땅에 있는 성전으로부터, 유대인의 종교의 중심지로부터,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모든 종교적인 사람들로 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나타났다. 그러한 곳이 아닌 이교도의 땅에 그리스도께 속한 무언가를 보여 주는 별이 있었다.

민수기(2)

메시지 10 (계속)

2. 단지 우리 손에 성경을 들고 미가서 5장 2절을 읽으면서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일도 이루지 못한다.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지만, 하늘에 있는 별을 놓칠 수 있다.
3. 별은 성경에 대한 낡고 죽은 교리적인 지식, 곧 미가서 5장 2절에 대한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 있는 계시, 살아 있는 이상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성경 지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상, 최신의 즉각적인 이상, 살아 있는 이상, 사람의 관념으로는 절대로 가르칠 수 없는 이상이다.
4. 비록 우리에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계신 바로 그 거리와 그 집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즉각적인, 최신의, 살아 있는 별이 필요하다.
5. 그 박사들은 살아 있는 이상을 받은 후, 그들의 인간적인 관념에 의해 잘못 이끌려 왕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들이 잘못 갔기 때문에 많은 어린 남자아이들이 죽게 되었다(마 2:16).
6.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께서 어디 계시는지 물었을 때, 성경은 “헤롯왕이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도 그러하였다.”라고 말해 준다 — 마 2:3.
 - a. 그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해야 했지만, 반대로 그들은 당황하였다.
 - b.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대하거나 휴거되기를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을 경고로 삼아야 한다 — 딤후 4:8, 비교 행 26:16.
7. 박사들이 성경 말씀으로 바로잡힌 후(마 2:4-6) 베들레헴으로 떠났을 때(8-9절), 별이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으로 그들을 인도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10절)
8. 박사들이 성경 말씀으로 바로잡히고 올바른 길로 다시 돌아왔을 때, 별이 다시 그들에게 나타났다. 살아 있는 이상은 언제나 성경 말씀과 함께한다.
9. 제사장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이들이었고(말 2:7), 율법학자들은 성경 말씀을 아는 이들이었다(스 7:6).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둘 다 그리스도의 출생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마 2:5-6),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달리 그들은 이상을 보지 못했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마음도 없었다.

결정 연구 개요

메시지 10 (계속)

10. 우리가 아무리 '성경적'일지라도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주님을 찾고 따르는 신약의 길은 지속적으로 그분의 감추어진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이다 — 요 5:39-40, 사 45:15, 출 33:11, 14, 비교 고후 5:16.
11. 성경 지식을 쌓기는 쉬우나, 우리가 살아 있는 안내를 받으려면 반드시 주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살아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그분과 하나여야 한다 — 고후 2:10-14.
12. 박사들은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리스도께 경배했다. 그런 후에 그들은 꿈속에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고, 따라서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마 2:12).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결코 이전과 같은 길, 곧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종교의 길을 가지 않고 항상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II. 그리스도를 신실히 따르는 이들은 빛나는 살아 있는 별들이다. 이들은 빛나는 살아 있는 별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분의 복사관이 된다 — 단 12:3, 비교 창 22:17.

- A. 살아 있는 별들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과 전부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하늘에 속한, 살아 있는, 최선의, 즉각적인 이상을 따른다 — 행 26:16-18.
- B. 살아 있는 별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이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그들에 대해 좋게 말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게 될 것이다 — 민 24:9, 창 12:2-3, 22:17.
- C. 살아 있는 별들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성경의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며, 그 결과 셋별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매일 떠오르신다. 만일 우리가 어두운 곳을 등불처럼 비추는 성경의 말씀에 주의한다면, 주님께서 셋별로서 실지로 나타나시기 전에도,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셔서 오늘 우리가 있는 곳의 변절의 어둠을 비추실 것이다 — 뱀후 1:19, 요 6:63, 계 2:28, 22:16, 담후 4:8.
 1. 셋별의 원칙에 따라 그리스도인은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이것은 이른 아침이 주님을 만나기에(하나님과 교통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며, 성경과 함께 사역의 말씀을 기도로 읽고, 주님께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이다 — 아 7:12, 시 5:1-3, 57:8-9, 59:16-17, 63:1-8, 90:14, 92:1-2, 108:2-3, 143:8, 출 16:21.

민수기(2)

메시지 10 (계속)

2. 주님은 그분을 사랑하고 깨어서 그분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셋별이신 그분 자신을 은밀히 주심으로, 떠나신 지 오랜 후에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임재의 신선함을 맛보게 하실 것이다.
- D. 살아 있는 별들은 일곱 배로 강화되신 영을 누리고 이 영으로 충만하다. 일곱 배로 강화되신 영은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그들을 생생하게 살아 있게 하시고 강렬하게 빛나게 하신다 — 계 3:1, 4:5, 5:6.
- E. 살아 있는 별들은 교회들의 전달자들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전달자이시자 하나님에게서 온 신선한 메시지이신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함으로써, 예수님의 증거를 위해 신선하신 현재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분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 계 1:16, 20, 2:1, 말 3:1-3.
- F. 살아 있는 별들은 ‘마음에 큰 결심’을 하고, ‘마음에 큰 살핌’이 있는 이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로서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원수에 맞서 싸우는 ‘별들’과 같고, 그 결과 ‘힘 있게 솟는 해’와 같이 될 것이다 — 사 5:15-16, 20, 31, 단 11:32, 마 13:43.
- G. 살아 있는 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종의 음성을 들으며 여호와를 신뢰함으로써, 어둠 속에 다니는 동안에도 빛이 있는 이들이다 — 사 50:10-11, 시 139:7-12, 23-24.
1. 자신을 위해 빛을 만들고 하나님의 빛 대신 그들의 빛, 곧 자신이 만든 빛 가운데서 행하는 이들은 고통을 겪을 것이다 — 사 50:11.
 2.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빛 가운데서 행하고 우리가 자신을 위해 만든 빛 가운데서 행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야 한다 — 요일 1:5.
 3.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 사 2:5.
- H. 살아 있는 별들은 하나님의 회복과 전진된 창조의 넷째 날에 창공에 두어져 빛을 비추므로써 다스리는 별들로 예표된다. 빛 비추어 있는 곳에 생명의 성장을 위한 다스림이 있다 — 창 1:14-19.
1. 변형의 산에서 주 예수님께서 밝게 빛나신 것은 왕국이 능력으로 임한 것이었다. 이러한 빛남은 사실상 삼일 하나님의 다스리는 임재이다 — 마 17:1-8, 막 9:1-8.
 2. 모든 축복과 누림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자 하나님의 통치인 하나님의 왕국은 주 예수님의 빛남이다. 왕국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빛을 비추심으로써 확산되신 것이다.

결정 연구 개요

메시지 10 (계속)

3. 왕국은 주 예수님의 실재의 빛남이다. 그분께서 우리 위에 빛을 비추시고 우리가 그러한 비춤 아래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성장을 위해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고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왕국 안에 있는 것이다.
- I. 부정적인 방면에서 어떤 이들은 ‘떠돌아다니는 별들’이다 — 유 12-13.
1. 떠돌아다니는 별들이라는 은유는 변덕스러운 교사들, 즉 변절자들이 하늘에 속한 계시에서 온 변하지 않는 진리에 견고히 머무르지 않고, 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2. 그들의 운명은 캄캄한 어둠이며, 이 어둠은 그들을 위해 영원토록 마련되어 있다. 오늘날 변덕스러운 변절자들은 떠돌아다니는 별들이지만, 장래에는 캄캄한 어둠에 갇히게 될 것이다.
 3. 우리는 또한 각 지방에 있는 참된 교회와 교회의 터 위에서 주님의 백성과 함께 모이는 집회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떠돌아다니는 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참된 별들은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이키게 하는 이들, 곧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빛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이들이다.
 4. 오늘날 살아 있는 별과 살아 있는 별들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이 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지적인 표현들인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 그리고 교회들과 함께 있다 — 계 1:11, 20.
 5. 각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에는 몇몇의 살아 있는 별들이 있다. 우리는 단순히 그들을 접촉하고 그들과 교통해야 한다. 그들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 J.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언제나 올바른 길에 지켜짐으로써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경배하며,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동방의 박사들처럼 되게 하셔서, 살아 있는 별을 따라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그리스도의 복사관, 곧 살아 있는 별들이 되게 하시기를 바란다 — 비교엡 5:8-9.